

정통 성리학에 던진 철학적 도전장

《지봉유설 정선》을 읽고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이수광이 활약했던 시대를 지배한 철학은 성리학이었다. 거대한 추상의 세계에 골몰한 성리학은, 현실세계를 무시하는 사상체계다. 그런 점에서 현실의식이 강한 이수광의 사유체계는 우리 사상사의 한 이정표다. 이수광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학문사가 '추상'에서 '현실'로 전환한 것이다.

언제였던가? 논문 자료를 얻기 위해 《지봉유설》을 처음 펼쳤을 때가. 이 책에서 원평도와 종유했던 초화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고 환호작약했다. 허나, 그 뒤로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경전과 역사와 문예, 그리고 천문·지리·국가제도·기사이문(奇事異聞)에 이르는 수십개의 갈래 속에 거뒀던 방대한 지식의 양에 스스로 열패감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3천개가 넘는 방대한 항목을 지봉은 불과 2년만에 써냈던 것이다.

우리 학문사의 새로운 전환점

《지봉유설》은 임진왜란 직후에 씌어졌다. 국가 최대의 도서관이었던 홍문관의 장서가 소실되고, 민간의 서적 또한 대부분 재로 변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방대한 책이 씌어졌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지봉은 전쟁 전 한차례, 전쟁 중 한차례, 전쟁 이후 한차례,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북경에 다녀오는데, 《지봉유설》이 인용하는 희귀한 서적들은 언제 지봉의 손에 들어왔던 것인가? 나는 지봉이 인용하고 있는 지식의 근거를 알고 싶다.

얼핏 봐 《지봉유설》의 지식은 변쇄하다. 하지만 나에게 이 변쇄함이야말로 되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문인과 학자들은 이런 류의 지식을 탐탁찮게 여겼다. 그들은 지시대상을 확정할 수 없는, 순수한 관념적 언어로 이뤄진 거대한 추상의 세계(성리학)에 골몰했고, 그것에 최상의 학문적 가치를 부여했다. 추상화는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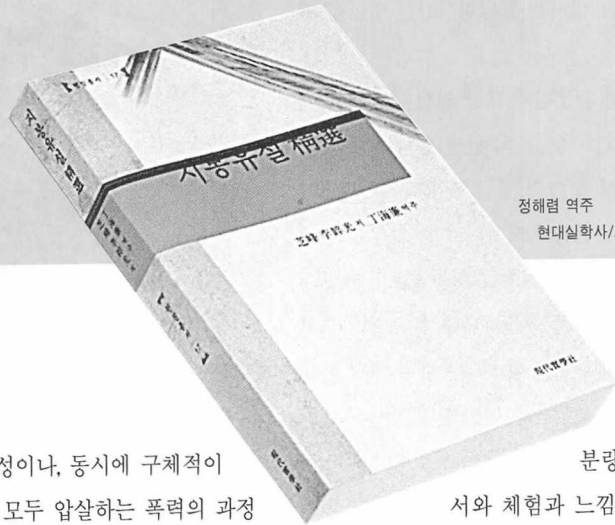
언어의 본질적 속성이나, 동시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모두 압살하는 폭력의 과정이다. 하물며 세계의 무궁한 복잡성을 몇 개의 관념어로 설명하고자 하는 성리학일진대, 그 폭력의 과격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봉유설》의 지식은 이와 반대편에 서 있다. 자질구레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 지식은 구체적·현실적 세계에 발을 딛고 있다. 《지봉유설》은 전쟁으로 노출됐던 조선전기 양반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가 하면, 마테오리치와 서양에 관한 지식을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결코 몰가치한 단편적 지식의 나열이 아니다. 지봉은 명백히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추상적 지식'에서 '구체적 지식'으로 복귀하기를 염원했던 것인가? 그리고 지봉의 시도는 과연 유의미한 일이었을까? 《지봉유설》 이후 《성호사설》《송남잡지》《오주연문장전산고》《임하필기》 등의 거창한 유서가 출현한다. 이 저작들의 내용과 가치를 여기서 따질 수야 없는 일이지만, 이 현상은 추상의 세계(성리학)에서 구체적·현실적 세계로 학문사가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봉유설》이야말로 그 최초의 이정표라고 평가합적하다.

자유로운 글쓰기의 전범

《지봉유설》은 부러운 책이다. 그 부러움의 근거야 허다하지만, 무엇보다 글쓰기의 자유가 더욱 부럽다. 지봉은 거개 원고지 2,3장 정도의 적은

정해림 역주
현대실학사/A5신/564면/15,000원



분량에, 자신의 독서와 체험과 느낌과 비평을 어떤 형식의 구에 없이 자유자재로 써낸다. 요즘의 글쓰기란 어떤가? 지식인의 글쓰기에서, 논문의 형식 속에 구겨 박아 넣지 않은 사유와, 특정한 주제로 수렴되지 않는 지식은 거의 대부분 폐기된다. 《지봉유설》이 보여주고 있는 글쓰기의 자유가 한없이 부럽다. 나는 언제 이런 무형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지봉유설》은 남만성 선생의 번역으로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적이 있다. 훌륭한 번역이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세로쓰기고, 한자가 많이 노출돼 있어, 전공자가 아니면 읽기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정해림 선생의 편역본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발췌역이라서 항목수가 대폭 줄기는 했지만, 모두 정수만 뽑은 것이라 전체를 알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상관 없다. 어떤 곳을 펼쳐 들어도 흥미롭다. 관심이 있다면, 교과서에서 그 이름만 들어봤던 이 책을 직접 읽어, 17세기 초의 저 유명한 지식인의 대뇌속에 갈무리됐던 지식의 바다에 흠뻑 빠져 보시기를. ●